



배달업 호황의 그늘... 이륜차 위법 폭증

올해 8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만 3173건 적발 안전도 미착용·신호위반 순... 사고도 307건 발생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이륜차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596건, 2019년 1095건, 지난해 221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3173건이 적발돼 이미 전년 한해 건수를 추월한 상황

이다. 올해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안전도 미착용이 1233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등의 순이었다. 단속 방식별로 보면 현장단속이 1143건이었고, 캠퍼드 활용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가 2030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도 총 307건 발생,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9명에 비해 5명 감소한 상황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교통순찰차 및 경찰 오토바이 등을 집중 배치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미부착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조정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용하지 못하는 자전거가 가득 세워져 있는 자전거 공공거치대. 강민성기자

공공거치대 자전거 폐기장소 전략

도내 공공거치대 1242곳 고장난 자전거 등 수두룩 행정 강제 폐기처분 증가 인력부족 현장단속 한계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공공거치대가 고장난 자전거 폐기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에서 비껴가고 있다. 9월 제주시내 자전거 공공거치대엔 자전거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거나, 녹슬고 먼지가 쌓인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제주시 청사 내·외부에 설치된 수거의 거치대에는 노란색 계고장이 붙어 있는 자전거가 무려 10여대나 목격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방치 자전거 단속 등 업무 분장이 되지 않아 서귀포시 공무원 1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방치 자전거로 판명돼 행정 강제 폐기처분된 경우는 2019년 848대, 2020년 1028대, 올해 8월까지 785대로 집계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흘 이상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할 시 철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치된 자전거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남지 않아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버린 것인지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수거·처분 절차도 복잡하다. 담당 공무원이 자전거 방치 사실을 확인하면 계고장을 15일 이상 부착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야 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 수거 사실을 제공하고, 다시 한달 간 기다린 뒤에야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현장 단속 등 대처를 하기 쉽지 않다"며 "자전거를 거치대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민성기자

서귀포시 돈내코 인근 주민 "말 사육장 건축사업 반대"

서귀포시 돈내코유원지와 수목원 등 유명 관광지 인근에 말 사육장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시 돈내코 인근 주민들은 9월 김태업 서귀포시장을 찾아 거주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말 사육장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

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마사(말 사육장)가 건축될 경우 축산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아무런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돈내코계곡 일대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말 사육 시 돈내코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대해기자

"피고인은 어머니다" 일곱살 아들 살인미수 20대 모 법정서 오열

일곱살 아들을 살해하려던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꾸짖음에 오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아들 B(7)군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즐거운 날... 레드키위 수확 9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레드키위를 수확하고 있다. 강해만기자

"반복 사무는 재량·위기엔 선 조치" 자치경찰위, 지휘·감독권한 경찰청 등에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상당수 지휘·감독권을 제주경찰청장과 제주자치경찰단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제16회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규정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성립되지 않아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의결 기간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한 사안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는 재량으로 처리하며, 긴박한 상황으로 즉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선 조치 후 보고하면 된다. 자치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은 규정 정비, 예산 및 장비, 주민 권리·의무, 위원회 심·의결 변경, 주요 사건 사고 및 현안 점검, 지방행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 외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는 집행기관 재량으로 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 연휴 종합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강대해기자 dhkana@ihalla.com

삼다수 빼돌린 6명 송치 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

제주 삼다수 1만6000여병을 빼돌린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6명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직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처분할 물량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품 QR코드를 찍지 않고 빼돌리는 방식으로 삼다수 1만6128병(28팔레트·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사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됐던 6912병(12팔레트·400만원 상당) 대비 횡령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이다. 현재 직원들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강민성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포함) +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